

참프레, NC다이노스 프로야구단 공식 후원사로 나선다



“참프레와 NC다이노스 두 기업은 신생 기업으로 최고의 명문기업, 최고의 명문구단으로 함께 성장 발전하겠습니다.”

전북 부안에 위치한 신생기업 (주)참프레(회장 김동수)가 경남 창원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 팀 NC다이노스(대표 이태일)의 메인 스폰서로 나섰다.

지난 2일 오전 11시 전북 부안 소재 (주)참프레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참프레 김동수 회장과 이선기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NC다이노스 이태일 대표, 배석현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프레와 NC다이노스 프로야구단 후원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후원은 참프레 김동수 회장의 고향 사랑과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최고가 되기 위해 전진하는 두 회사 간의 경영이념과 맞물리면서 이뤄진 것이다.

실제 군산 출신이자 전주고를 나온 김동수 회장은 NC다이노스가 창원을 연고로 하는 야구단이지만 도내 고교야구팀인 군산상고와 전주고 선수를 우선 선발할 수 있는 지명권이 있다는 말에 지역 야구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흔쾌히 NC구단과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동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프레와 NC다이노스는 우연인지는 몰라도

2011년 같은 해에 설립된 신생 기업과 구단으로서 앞으로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참프레는 우리나라 식품문화를 선도하는 명문기업으로, NC다이노스는 더 재미있는 스포츠 문화를 선도하는 명문구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유망주들의 앞날에 NC가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NC다이노스 이태일 대표이사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여정에서 후원 기업과 구단관계가 아니라 든든한 가족을 만난 것 같아 반갑다”고 말한 후 “정의, 명예, 존중이라는 구단의 가치를 통해 사회와 지역에 스포츠 정신을 추구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서로 힘이 되고 전 북지역 고교야구 유망주 발굴과 야구 저변을 확대하는데 동반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동수 회장은 고흥열 감사, 김재윤 부장과 함께 지난 4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NC다이노스의 홈개막전을 직접 관전했으며, 이날

NC다이노스의 승리의 기쁨을 김택진 구단주와 이태일 대표와 함께 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참프레, 2014시즌부터 3년간 후원

(주)참프레는 3년간 NC다이노스의 메인 스폰서로 나선다.

보통의 경우 프로야구 후원 협약은 한 시즌 동안만 하는 게 관례지만 참프레의 3년 후원은 이례적이다. 이는 한번 인연 맺기는 힘드나 맺은 인연은 중요시 하게 생각하는 김동수 회장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주)참프레는 2014년 시즌부터 2016년 시즌까지 NC다이노스 야구단의 선수 홈·원정 유니폼 상의 가슴부분, 포수 프로텍터 정면, 기록실 좌·우·하단 3면에 LED 참프레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으로 참프레 이미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글 · 김효진 기자(hj@chicken.or.kr)



NC다이노스 이태일 대표이사를 비롯 구단 관계자들이 참프레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NC다이노스의 이민호 투수와 허준 포수. 포수 프로텍터와 유니폼의 참프레 마크가 선명하다.